2026 신년사

사랑하는 방송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구성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해여서 저로서는 지난 한 해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나아가서 우리 대학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대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국립원격대학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또 많은 성과를 통해 숨은 가치와 저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입증해 왔습니다.

이는 구성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숭고한 주인의식과 희생적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총장직을 수행한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구성원들 간에 큰 갈등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큰 행운이었다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방송대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대 가족 여러분!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속에서도 원격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향한 혁신을 굳건히 이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한 축'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위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대학은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 번의 조그만 변화만으로 몇 년을 편히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바로 뒤쳐지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적어도 원격교육 분야에서만큼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6년 새해, 우리 대학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최적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AI(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학습 플랫폼을 대폭 개선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배움이 더욱 정교하고 따뜻해지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둘째, K-에듀를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의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50년 넘게 축적해 온 원격교육 노하우와 우수한 교육 콘텐츠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유수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의 교육 모델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을 글로벌 인재들이 오가는 '열린 지식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세계적인 대학에 몸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인 '공공성'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원격교육의 맏형이자 평생교육의 보루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고르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국립대학 중에서 오직 우리 대학만이 실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공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대학이 올해 국고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전 국민 AI 기본 역량 교육 사업"은 우리 대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적인 역할과 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공유'와 '협력'은 우리 대학의 공공성 실현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올해로 3년차가 되는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공유를 통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전문대학들로 구성된 해외인재유치협의회와 함께 유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올해부터 지방의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프라임칼리지의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협력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은 우리 대학의 공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우리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대 가족 여러분!

위대한 대학의 역사는 총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한 줄 한 줄 함께 써 내려가는 공동의 서사(敍事)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이 누리는 명성은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주신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정을 뒷받침해 주신 직원 선생님,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며 모교를 빛내주신 동문과 학우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4년 동안 취임 당시 가슴에 품었던 초심을 되새기며, 여러분과 약속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의 변화와 혁신이 방송대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거친 들판을 주저 없이 달리는 진취적 기상과,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강인한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붉은 말이 품은 불의 기운은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붉은 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우리 대학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2026년을 더욱더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대학의 앞길에 밝은 희망과 새로운 활력을 가득 채워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고 성 환